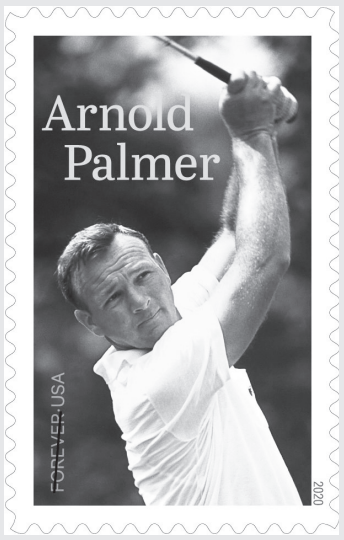
아널드 파머 기념 우표 발행

미 연방우체국(USPS)이 아널드 파머가 생전에 스포츠에 남긴 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를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USPS는 "파머는 엘리트의 취미로 여겨지던 골프를 대중이 즐기는 스포츠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고 기념 우표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 내년에 발행될 아널드 파 기념우표

기념 우표는 내년에 발행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표에는 파머가 1964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US오픈에서 우승했을 당시의 모습이 담긴다.

파머는 1929년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 세 살부터 골프를 시작해 1955년 미국프로골프포(PGA)에 데뷔하고 1958년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196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프로 통산 95승을 기록했고 PGA 투어에선 통산 62승을 거둬 역대 다섯 번째로 많은 우승을 기록했다. 메이저대회에서 기록한 7승 중 마스터스 우승만 네 번이나 돼 '오거스터의 사나이' 란 별칭을 갖게 됐다.

PGA 챔피언십 우승을 못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파머는 '왕(The King)'이라고 불리며 업적을 쌓아갔다. 1968년 PGA 투어 최초로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1974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2006년 77세의 나이로 시니어 투어 공식대회에 마지막으로 출전했으며 2016년 9월 26일 87세에 심장 질환으로 타계했다.

미국 우표에 골프 선수의 모습이 담기는 것은 파머가 4번째다. 메이저 대회 13승의 바비 존스, 1913년 US오픈 우승자 프랜시스 위멧,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전설적인 선수인 베이브 자하리아스가 1980년대에 기념 우표에 실린 적이 있다.

AFC컵 결승 장소 평양에서 상하이로 변경

아시아축구연맹(AFC)이 11월 2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9 AFC컵 결승전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변경했다.

▲ AFC컵 결승전 장소가 평양에서 상하이로 변경됐다. 지난 15일, 월드컵예선 남북 축구 평양경기가 무관중, 무중계로 열렸던 여파로 보인다.

평양을 연고로 하는 북한의 축구팀 '4·25 체육단' 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하위 대회인 AFC컵에서 결승에 올랐다.

예정대로라면 11월 2일, 레바논의 알 아헤드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아시아축구연맹은 지난 22일, 북한 4.25 축구단과 레바논 알 아헤드의 AFC컵 결승전 장소를 상하이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중계방송과 미디어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고려한 결과 중립국에서 결승전을 치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UN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선 방송과 광고 등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하기ㅈ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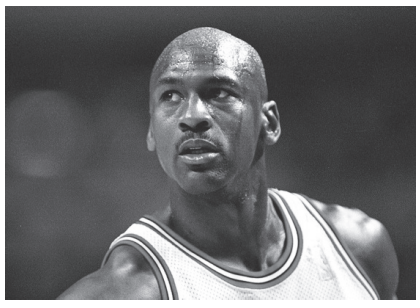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이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치러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취재진, 응원단은 물론이고 관중도 없이, 또 중계도 허용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 로 불린 남북전은 북한의 홈경기 개최에 불확실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축구연맹이 남북 축구 경기를 축구팬들이 자유롭게 관전하고 언론이 보도할 권리를 위해 더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밝혔다.

북한은 앞으로 월드컵 예선 홈 경기를 2경기 남겨둔 상황이지만 이 역시 평양 개최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던 "커리, 명예의 전당 입성 논의 일러"

마이클 조던이 미국프로농구(NBA) 현역 최고의 스타인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명예의 전당' 입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선수 시절의 마이클 조던

지난 23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조던은 이날 NBC의 TV쇼에 출연해 "커리가 훌륭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명예의 전당 회원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고 말했다. NBA 샬럿 호니츠의 구단주이기도 한 조던은 자신이 생각하는 베스트5에 하킴 올라주원, 매직 존슨, 스카티 피펜, 제임스 워시를 언급하면서 "이 팀 안에 커리는 없다." 고 말했다.

커리는 NBA 10시즌 동안 2015년과 2016년에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특히 2016년에는 선정위원들의 전원일치 1위표를 받았다. 이는 5차례나 MVP를 수상했던 조던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다.

커리의 소속팀 감독이자 조던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스티브 커는 "조던은 그만의 명예의 전당 리스트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든 그만의 생각" 이라고 말했다.

매직 존슨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두들 진정하라. 우리는 커리가 미래의 명예의 전당 회원이라는 걸 이미 알지 않나. 조던은 NBA에서 벌금을 무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뿐" 이라고 했다. 조던이 NBA 샬럿 호니츠의 구단주이기 때문에 커리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존슨은 LA 레이커스의 사장으로 재임했던 그는 지난해 '야니스 안테토쿰보(밀워키)가 챔피언십으로 이끌것' 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NBA로부터 '사전 접촉 규정' 위반으로 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ning)
  IRA'S IRA Rollover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